[1교시]

제2강 감성적 판단력

▲ ‘ästhetisch’ 의 의미

☞ ästhetisch는 ‘감각적 지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isthēsis에서 유래한 것이다.
칸트는 이 말을 ‘표상이 주관의 쾌·불쾌의 감정과 연관되는 경우’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므로 객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객관(의 성질)이 주관의 감정에 미치는 결과에 의거해 내리는 판단은 모두 **ästhetisch한 판단**이다.

ästhetisch는 흔히 ‘미감적’, ‘미적’으로 번역되고 일부에서는 ‘심미적’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ästhetisch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감성적’이라고 생각되기에 ‘감성적’이라는 번역어가 더 적합하다.**
‘감성’은 사전적으로 ‘자극인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이라는 뜻이며, 일상적으로 ‘감성이 무디다/감성이 섬세하다/감성이 뛰어나다/그 시인은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다’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감성’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과 ‘자극이 정서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는 능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리말 용법을 (특히 칸트의) 철학적 개념과 연관시켜 보면, 전자는 대상인식의 질료(내용 - 경험적 표상의 실제적인 것)를 획득하는 능력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자극을 계기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 또는 감성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다.
이러한 용례는 **ästhetisch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용될 때 ‘감각Empfindung’이라 불리고 주관적으로 사용될 때는 ‘감정Gefühl’과 결부된다는 칸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ästhetisch를 항상 감성적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서양어권에서 이 말의 의미에 미(美)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Ästhetik의 번역어로 ‘미학(美學)’이 언중들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ästhetisch역시 좁은 의미로, 미에 대한 판단이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형용사 ästhetisch가 분명히 ‘미’에 한정되어 쓰이는 경우라면 ‘미(감)적’ 또는 ‘심미적’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비슷한 이유로 명사 Ästhetik는 ‘감각의 수용능력에 관한 학’이라는 의미라는 ‘감성론(학)’으로 번역하고 ‘미’ 또는 ‘미와 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련되어 있는 주제들(추, 숭고, 우아, 장엄 등)' 이나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의 명칭으로 사용된다면 '미학'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렇지만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Ästhetik를 '감성학'으로 번역하되, 감성학을 '감각의 수용능력을 다루는 학'과 '감각에 의한 주관의 정서적 또는 감정적 변양을 다루는 학'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미학'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본다.

[2교시]

미의 분석론

▲ 美에 대한 관점

우선 칸트『판단력 비판』의 목차를 살펴보자.

제1부 감성적 판단력의 비판
제1장 미의 분석론

취미판단의 제 1계기 - 성질범주에 따른 고찰(분석)
취미판단의 제 2계기 - 분량의 범주에 따른 고찰
취미판단의 제 3계기 - 취미판단에서 고찰되는 목적의 관계
취미판단의 제 4계기 - 대상들에 관한 만족의 양상

위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는 **미의 분석론**이란 주제 아래 아무런 설명도 없이 표제어를 **취미판단**으로 하고 있다.

▸칸트는 왜 갑자기 미의 분석론에 '취미판단'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 아무런 설명 없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축을 가지고 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고대인(플라톤)에게 미는 idea(존재하는 것)이다. 신이나 천사, 인간, 지우개 등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도 나와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혹은 미는 객관적 존재이자 이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 성질은 조화와 비례로써 예를 들자면 흔히 알려져 있는 황금분할(1:1.618)이나, 비너스의 팔등신 등이 있다.

▸ 고대인(플라톤)에게 미는 이데아 이다.
▸ 이데아는 존재하는 것이다.
▸ 따라서 미는 객관적 존재자 이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의 속성이다.

그러나 근대(특기, 칸트)에 와서 이러한 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
미는 주관적인 것으로써,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의 판단이나 정서의 문제가 된다.
즉, 칸트에게 있어 '미'란 **'존재자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고대인이 '미'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 반면(고대인 또한 미가 쾌감을 주는 것은 부정하지 않음), 근대인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칸트는 쾌감과 관련하여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정의하며, 이런 **쾌감에 근거한 판단을 취미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를 분석하는 것은 취미판단을 분석하는 것**이다.
▸ 칸트는 고대와 근대의 사상가들의 단절을 이루는 이러한 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고 취미판단이라는 표제를 붙임으로써 자동적으로 해명했다.

▸ 취미판단이란 용어에는 '미(美)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대 철학자와 태도를 달리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 취미 Geschmack

독일어 Geschmack는 독일어 Schmechen(맛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영어의 'taste'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미라는 말이 가장 원뜻에 가깝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각과 관련되어 있으며, 美의 의미뿐 아니라 쾌감(만족)과 관련되어 생각을 해볼 때에, Geschmack은 감각에 의해서 만족을 주는 모든 경우, 이념· 맛 등을 포함하게 된다.
칸트 또한 넓게 쓸 때에는 그런 뜻으로 한다. 한편에선 Geschmack을 심미로 번역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Geschmack을 심미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이며,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변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가까운 뉘양스는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 취미 Geschmack 가장 좁은 의미로 쓰일 때 – 美를 판단. 판정하는 능력으로 쓴다.

▲ 성질 범주에 따른 고찰

범주란 순수지성개념이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칸트는 **“우리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칸트의 네 가지 범주			
분량	**성질**	**관계**	**양상**
단일성	실재성	실체와 우유	가능성
다수성	부정성	원인과 결과	현실성
전체성	제한성	상호성	필연성

칸트는 위의 네 가지 범주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류한다. 인간이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던 위의 네 가지 범주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에도 당연히 위의 네 가지 성격의 순서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취미판단만 성질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한다. 이유는 취미판단이라는 개념이 긍정되어야만, 있어야만 고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